

‘공공요금 폭등’... 연초부터 지역 체감물가 ‘깡충’

1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 전년비 광주 5.3%·전남 5.5% ↑ 광주생활물가 6.6% ‘전국 최고’ 도시가스·전기료 등 인상 원인

연초부터 지역 물가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정점을 찍고 조금씩 상승폭이 둔화되던 광주·전남 소비자물가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새해 첫 달부터 다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광주지역 생활물가지수는 서울, 강원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5(2020년=100)로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했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5월 5%대로 뛰어오른 후 6월 6.3%, 7월 6.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고 8월 5.8%로 떨어지면서 현재까지 상승폭이 둔화돼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4.9%까지 내려갔지만, 지난달 5.3%를 기록하며 다시 5%대로 재진입했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역시 지난해 6월 7.1%, 7월 7.3% 오르며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11월 5.3%, 12월 5.2% 등 상승폭이 둔화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0.63(2020년=

100)으로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하며 역시 소폭 반등한 상태다.

특히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광주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지난해 11월과 12월 5%대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지난 1월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 6.6% 오르며 3개월만에 다시 6%대로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6.1%)을 웃도는 수치이며 서울, 강원과 함께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전남의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하며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만에 6%대로 재진입했다.

연초부터 물가 상승폭을 확대시킨 가장 큰 원인은 전기·가스·수도·연료 등 줄줄이 인상된 공공요금으로 꼽힌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요금은 광주 28.5%, 전남 27.3% 오르며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구체적으로 광주는 등유 39.3%, 도시가스 35.7%, 지역난방비 34.6%, 전기료 29.5% 등에서 크게 올랐으며 전남 역시 등유 37.1%, 도시가스 34.5%, 전기료 29.5% 등 공공요금이 크게 올랐다.

이와 함께 한파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으며 원재료값이 오르면서 음식·숙박도 광주·전남 모두 7%

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류와 가공식품 역시 소주 21.4%, 맥주 17.1%, 생선회 12.2%, 돼지고기 10.7%, 삼겹살 9.2%, 치킨 8.2% 등 외식물가가 크게 오르며 서민 가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같은 경우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에 크게 작용했는데, 올해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다시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기저효과 등이 사라지는 시점을 예상해볼 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은행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온라인 신청

광양·나주·목포·순천·여수 거주자 28일까지 인터넷뱅킹·모바일웹서

광주은행은 전남도의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시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전남 지역 청년들에게 연 최대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공연관람, 학원수강, 여행,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을 위해 전남도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1년 2월1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28세(1995~2004년 출생) 청년으로,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대상자, 전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된다. 단,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는 문화누리지원금 11만원을 제외하고 차액 9만원만 지급된다.

오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광양·나주·목포·순천·여수시 거주자에 한해 광주은행 인터넷뱅킹(www.kjbank.com)과 모바일웹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오는 4월 초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광주은행 전국 영업점 및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앱(APP)을 통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발급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광주은행에서 기존에 발급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에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될 예정이다.

유동구카드사업부장은 “지역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전남지역의 취약한 인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에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테크노파크 “사회적 가치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광주첨단산업단지 커뮤니티 나눔마켓·ESG 포럼 등 추진

광주테크노파크는 사회적 가치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일 ‘광주첨단산업단지 사회적 가치 커뮤니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실현 커뮤니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내 14개 기관·단체로 결성, 지역공동체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범 광주첨단산업단지영자협의회장 등 14개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2023년도 첨단산업 입주기업인과 지역민에게 사회적 가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재능기부센터장우철 대표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 강연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강연을 듣고 나눔을



광주테크노파크가 사회적 가치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일 ‘광주첨단산업단지 사회적 가치 커뮤니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키워드로 한 다양한 활동을 커뮤니티에서 추진하고자 논의했다.

커뮤니티는 2023년 중점 추진 활동으로 △지역사회 나눔과 자원순환을 위한 첨단산업 나눔마켓 △산단역량강화를 위한 ESG포럼 △산단입주기업 및 근로자 복지를 위한 행복트럭 △근로자 안전을 위한 방역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범 사회적 가치 실현 커뮤니티 회장은 “커뮤니티 출범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런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나눔을 실현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3년만의 오프라인 언팩... ‘갤럭시 S23’ 시리즈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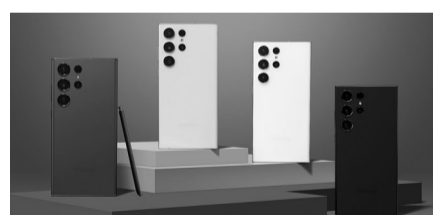
‘S23 울트라’ 등 3종

삼성전자가 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닉 오디오리움에서 ‘갤럭시 언팩 2023(Galaxy Unpacked 2023: Share the Epic)’을 개최하고 ‘갤럭시 S23 시리즈’를 공개했다. (사진)

갤럭시 S23 시리즈는 오는 17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에 순차 출시되며 팅크 블랙, 크림, 그린, 라벤더 등 4가지 색상으로 국내에는 7일부터 13일까지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S23 울트라는 가장 진화된 스펙을 자랑한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상 역대 최고인 2억 화소 카메라, 6.8형 Quad HD 120Hz 엡지 디스플레이 등 혁신 기술을 모두 탑재했다. 갤럭시 S23+와 갤럭시 S23은 5000만화소 카메라에 각각 6.6형과 6.1형의 FHD+ 120Hz 플랫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센서와 AI에 기반한 혁신 기술을 결합해, 어떤 환경에서도 쉽고 빠르게 디테일하고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독보적인 ‘나이토그래피’를 통해 낮과 밤의 구분없는 촬영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 모델을 갤럭시 S23 시리즈에 최적화하는 등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도 갤럭시 스마트폰 사상 역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배터리 사용성도 개선됐다.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갤럭시 S23 울트라는 효율 개선을 통해 사용자가 보다 오랜 시간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갤럭시 S23+와 갤럭시 S23은 전작 대비 각각 200mAh씩 배터리 용량을 늘려 각각 4700mAh과 39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다.

삼성의 독자적인 칩셋 보안 플랫폼인 ‘삼성 녹스볼트’를 통해 비밀번호·생체인식·인증기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물리 공간에 저장해 강력한 보안 기능도 제공한다.

곽지혜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미래산업 중기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고 등 주관기관 모집 직업교육·자격증 취득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미래 유망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및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특성화고와 대학교 등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학교와 중소기업이 협력해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특성화고(고교) △기술사관(전문대) △중소기업계약학과(대학

(원)) 등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신규 주관기관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5개, 기술사관 5개, 중소기업 계약학과 10개 등 총 20개 학교이며 모집 분야는 미래 유망분야 및 이공계 분야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 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등 첨단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현재 특성화고 21개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7개학과를 운

영 중으로, 중소기업 특성화고와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65~100%)를 2년 학위과정 동안 지원한다.

이외에도 주관기관에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1억5000만원, 기술사관 사업단 3억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1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중소기업 특성화고의 경우 오는 28일, 기술사관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내달 1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곽지혜 기자

이마트, ‘고물가 부담완화’ 주말 특가 행사

생필품 반값할인 등 진행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이마트가 고물가 속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창립 30주년 캠페인 개시 첫 주말을 맞아 초대형 ‘주말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2일 이마트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계란 40만판, 사인머스켓 120톤 물량 등 1+1 행사만 80여종에 달

하는 대규모 행사를 선보인다.

특히 ‘집밥’ 필수 재료인 계란의 경우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썬세일이나 DAY 1보다 더욱 많은 물량인 20만묶음, 총 40만판을 확보해 특가에 판매한다.

또 농가별로 관리한 15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사인머스켓을 120톤 물량으로 준비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외에도 대형행사 때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봉지라면 2+1 행사,한우 30%, 제주 은갈치 44%, 손질바지락과 이력제 봉지굴 등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 판매한다.

냉동 군만두와 핫도그, 시리얼, 고추장·쌈장, 상온커피, 볶음김치·묵은지, 젤리, 케첩·마요네즈, 올리브 오일 등 고객들이 자주 구매하는 필수 식품류 전 품목과 퍼실·테크·다우니 세탁세제, 핸드워시·핸드크림, 헤어트리트먼트, 주방세제, 물티슈 등 필수 생활용품 전 품목은 2개 구매 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곽지혜 기자**